“북구 대형마트 우회입점 주인 누구나”

지역 상인들 삼성테스코측에 공식입장 요구

대책위, 개발업체와 이면 계약 의혹 제기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 신축과 관련해 우회입점 의혹을 받아왔던 삼성테스코측에게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북구대형마트입점대책위원회는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테스코는 삼각동 대형마트 입점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테스코가 다른 건축주를 내세워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입점하는 ‘우회 입점’ 방식으로 2007년 광주 계림점과 2008년 목포 용당점을 출점했었다”며 “북구 삼각동 대형마트와 관련해 개발업체인 샹젤리제코리아와 삼성테스코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입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대형마트와 계약을 했다는 말이 홈플러스로 소문이 나면서 괜한 오해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8월에도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입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회입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계림점의 경우 (주)필하임 플러스가 부지를 매입해 지난 2006년 9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대형마트의 건축주를 삼성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점을 했다.

또 지난 2008년 문을 연 목포 용당점도 2005년 8월에 ‘케이마트’가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냈지만 목포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대형마트를 완공하고 나서 출점을 앞두고 삼성테스코로 건축주를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목포에 진출했다.

홈플러스가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점 사실을 감추거나 제 3자를 통한 ‘우회 입점’을 하는 등 떳떳하지 못한 입점 방식으로 출점을 해왔기 때문에 의혹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가 입점과 관련해 입장을 해명하면서 다른 대형마트를 거론해 해당 유통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홈플러스가 매곡동에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대형마트대책위는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도 입점 계획 여부를 질의할 방침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8일 오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2010년도 한국은행 지역경제 학술세미나’에서 정형식 조선대 교수가 광주R&D 특구 육성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R&D특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야”

한은 학술세미나

광주 R&D(연구개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덕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차별화와 동시에 ‘광주-대덕-대구특구’와 연계협력하는 트라이앵글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조선대 경영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0년도 한국은행 지역경제 학술세미나’에서 정형식 조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순수연구개발단지의 특성보다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광산업·정보가전산업·디자인산업)+녹색(신에너지·그린카 및 클린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광주·전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광주R&D특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생산기능은 충실하지만 산학연 협력, R&D 역량, 지식기반 서비스,고급 기술인력의 여건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광주R&D특구는 대덕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차별화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참여 주체들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 연구자·신규기업·벤처자본가 등의 가교역할을 통한 첨단기술 이전과 상업화, 대덕-광주-대구 R&D특구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이 보유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사업화함으로써 지역의 벤처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며 ‘21세기 문화예술의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에 들어맞는 산업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경남은행, 지역자본에 매각돼야”

광주·전남, 경남·울산지역 상의 공동 성명

30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 공고를 앞두고 영·호남 상공회의소가 이들 향토은행은 지역자본에 매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경남·울산지역 상공회의소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 지역고용 창출 및 인재양성 등 지역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해 해당 지역자본에 매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영·호남 상의는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거래처도 지역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은행의 영업구조를 고려할 때 영업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을 지역에 환원해 지역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직전 주식이 소각돼 경제적 손실과 좌절감을 입었지만 영호남 지역주민은 지금도 광주·경남은행에 예금은행의 수신액 중 많은 부분을 맡기는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어 향토은행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상의는 “외부자본이 지방은행을 인수하거나 경쟁으로 인수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져 지역자본이 인수한다면 이후 부실경영 우려가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 영호남 지역민과 두 지역 상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방금융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산업단지의 날’

첨단산단서 행사 다채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강달순)는 29일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 첨단산단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산업단지의 날’ 선포식과 문화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에 다양한 문화 요소를 도입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소를 불어넣는 한편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을 비롯해 나기수(한국CNS 대표이사) 첨단경영자협의회장, 곽만수(삼광실업 대표이사) 평동경영자협의회장 등 지역 각계 인사와 입주기업 대표, 근로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산업단지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명랑 운동회, 장기자랑,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채롭다. 내년부터는 광주 첨단산업단지 창립일인 5월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 문화행사 등을 열 계획이다.

호남권본부 김흥수 광주지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업단지가 한층 쾌적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단지의 날’ 행사가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신재생에너지 인력 1만명 양성 시급

전남경제인협회, 인력수요 조사 보고

앞으로 5년간 전남에서만 1만 명에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위한 인력양성체제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전남지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동구 히딩크호텔에서 열린 ‘전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 인력수요 상세조사 및 인력양성 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정인서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연구실장은 “공학인증제 수료 인력 확보, 실무형 설계인력과 특화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5년간 녹색 일자리가 전 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1.3%)보다 빠른 속도(6.0%)로 증가해 2013년 녹색 일자리 규모가 지난 2008년보다 20만개 증가한 약 81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사업규모로 볼 때 이 분야의 직접 고용인력 효과는 2400명, 연계기업에서의 간접 고용인력 효과는 7000명 등 총 9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태양광 설비시스템 개발자, LED 생산관리자, 그린카 설계 개발자, 생태도시 개발 기획가, 농업환경 컨설턴트, 정밀농업 전문가, 탄소거래 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고용 감소

작년 8만1609명 … 전년보다 1112명 줄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8만1609명으로, 전년보다 111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정보 사이트 ‘코참비즈’에 등록된 전국 기업 6만6103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고용 인원은 4만30명으로, 2007년 4만1185명, 2008년 4만1050명 등 2년사이에 1155명이 줄어들었다. 전남지역도 2007년 4만159명에서 2008년 4만1671명으로 912명 늘었다가 지난해 4만157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 서울은 2년새 9만8448명(6.6%)이 늘었고, 대전도 4741명(8.7%) 증가했다.

기업군으로는 대기업(1308곳)의 지난해 고용인원이 160만4134명으로 전년보다 4만9954명(3.2%) 늘었고, 중소기업(6만3705곳)은 131만6097명으로 전년보다 1만593명(0.8%), 중견기업(1090곳)은 47만4889명으로 6762명(1.4%) 감소했다.

상시종업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8만5085명을 고용했다. 이어 현대자동차(5만5984명), 기아자동차(3만2616명), KT(3만841명), LG전자(2만9554명), 국민은행(2만5871명) 등의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07.87 (-1.67)
▼ 코스닥지수	527.36 (-1.23)
▼ 금리 (국고채 3년)	3.23% (-0.07)
▼ 원·달러 환율	1,123.80원 (-4.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